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2, pp. 61-72, 2018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8.9.2.061

간호대학생의 자아 상태, 대인관계 유능성 및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융합연구

김상남, 김영미, 이소영*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The Convergence study on the Ego stat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Sangl-Nam Kim, Young-Mi Kim, So-Young Lee*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 대인관계 유능성 및 문제해결 능력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방법은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 3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SPSS/Win 21.0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비판적 부모 자아(CP), 양육적 부모 자아(NP), 성인 자아(A),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와 대인관계 유능성, 문제해결 능력과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순응적 어린이 자아(AC)는 대인관계 유능성과 문제해결 능력의 계획 및 실행이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CP, NP, A, FC 자아상태를 증진시키고, AC 자아상태의 부정적 특성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상호교류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대인관계 유능성, 문제해결 능력, 융합, 자아상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go stat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survay study 311 nursing students who have clinical experience. Data was collect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by SPSS / Win 21.0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critical parent ego state(CP), nurturing parent ego state(NP), adult ego state(A), free child ego state(FC),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Adaptive Child ego state(AC) showe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order to improv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CP and NP, A, FC ego state and develop and apply mutual AC analysis program to overcome the negative characteristics of AC ego state.

Key Words :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Problem solving ability, Convergence, Ego stat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급변하는 의료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들이 요구된다.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academic research fund of Kyungwoo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So-Young Lee(ysy03967@hanmail.net)
Received December 13, 2017 Revised December 20,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그 중 문제해결능력은 간호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의료소비자의 간호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이다[1,2]. 또한 간호현장은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이 늘 예측대로 적용되어지지 않는 상황이므로 간호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사의 문제해결능력은 중요하다[3].

문제해결능력은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할 목표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지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으로[4], 문제해결능력이 좋은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적극적 의지와 주변에서 대처 자원들을 찾으려는 행동을 통해 적응수준을 높일 수 있다[5]. 반면, 문제해결능력의 결여는 사회적 위축과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6]. 그러므로 문제해결능력은 간호대학생이 친숙하지 않은 임상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황조절에 대한 자신감과 대처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7].

지금까지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간호수행능력과 문제해결 과정[8], 문제해결 과정과 간호수행능력 및 비판적 사고[9], 해결중심 의사소통훈련이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7], 임상실습에서 과제수행방식이 의사소통능력에 따라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0] 등으로 주로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등과 같은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심희숙과 안성윤은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문제해결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11].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교육과정에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반영한다면 간호문제해결능력의 상승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건강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은 치료나 완치보다는 예방이나 건강 할 때 유지·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임상 현장에서 대상자 간호에 있어서도 질병과 관련된 직접적인 간호행위 못지않게 대인관계를 매개로 하는 의료인이나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협력과 조정, 의사소통, 교육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11]. Kaids는 대상자 및 그 가족과의 대인관계는 간호실무의 핵심으로서 간호를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고 보았다[12]. 대상자와의 치료적 대인관계 형성 능력이 간호의 질을 결정하며, 간호실무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치료 효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11], 간호사의 대인관계 능력은 간호사의 소진[13], 업무성과[14]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보고되었다.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자아상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자기정서 인식과 타인정서 인식을 통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15]. 치료자가 자아상태 즉,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경우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하여 대인관계를 지속해 나가기 힘들다[16]. 반면 자신에 대해 정확하고 폭넓은 인식과 이해를 가진다면 좀 더 쉽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 자신을 적절히 대상자에게 노출하여 대상자의 자기표현을 격려할 수도 있다[11]. 이처럼 자아상태 인식이 대상자와의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것과 같이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문제해결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신이 효율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11]. 즉, 불확실성, 불안정성의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간호수행능력과 문제해결 과정[8], 문제해결 과정과 간호수행능력 및 비판적 사고[9], 해결중심 의사소통훈련이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7], 임상실습에서 과제수행방식이 의사소통능력에 따라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0] 등으로 주로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등과 같은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성격유형과 자아상태의 관계[17], 자아상태, 자존감, 공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18] 등이 있다.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 능력은 임상현장에서 간호인력으로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선행되어야 할 자아상태 인식과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 능력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류분석 이론에 근거한 이고그램을 통해 나타난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를 확인하여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 능력과의 관계성을 융합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자아상태,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 능력을 확인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자아상태,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 능력을 확인한다.
3) 대상자의 자아상태,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영남지역 소재 간호학과 재학생이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상태와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는 1개 학기 이상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영남지역 소재 5개 대학을 표의표본 추출하고 해당 대학의 학장 또는 학과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승인을 받은 후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 한해 서면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수는 G*Power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유의수준 (α).05, 효과크기 (f^2).25 (medium), 검정력 (1-β) 9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280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 15%를 고려하여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고, 회수한 설문지 중 결측치가 많은 19부를 제외한 31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수집되는 자료는 설문지이며 질문내용은 총 132문항이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문항, 자아상태 측정 도구(Egogram) 50문항, 대인관계 유능성 관련 31문항, 문제해결 능력 관련 45문항이다.

- 자아상태 측정 도구(Egogram)

자아상태는 Berne의 자아 상태 개념을 구체화하여 Dusay가 기능별 자아상태 에너지의 양과 직관으로 측정하여 막대 그래프화 하였다. 동양의 정서와 문화는 직관식 이고그램보다 정량적 이고그램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스기다 미네야스[19]의 정량적 이고그램 일본식 검사 도구를 번안하한 이명노 이고그램 체크리스트 50문항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자아상태의 심리적 에너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자아상태의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과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자아상태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 비교하였다. 자아상태는 비판적 부모 자아(CP), 양육적 부모 자아(NP), 성인 자아(A),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 순응적 어린이 자아(AC)상태가 항목별로 10개 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자아상태는 50점 만점으로 한다. 연구도구 사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허락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은 .78이었다.

- 대인관계 유능성

대인관계 유능성은 Buhrmester 등(1988)[20]이 개발하고 한나리와 이동귀가[21]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로 번역, 수정하여 대학생에 맞게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로 측정한 점수는 1점 '잘못한다'에서 5점 '매우 잘한다'의 5점 척도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채점 문항은 없고 점수는 총합 점수로만 사용하며 31문항 반응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점수범위는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5가지 하위요인은 관계형성 및 개시(8문항),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7문항), 타인에 대한 배려(7문항), 갈등관리(6문항), 적절한 자기개방(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α값은 .88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87이었다. 연구도구 사용에 대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허락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 문제해결 능력

문제해결능력은 한국교육개발원[2]에서 개발한 생애능력 측정도구 중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문제의 명료화(5문항), 원인분석

(10문항), 대안개발(10문항), 계획/실행(10문항), 수행평가(10문항)의 총 5개 능력요소로 구성되고, 이는 다시 9개 하위요소로 구분되어 있다. 능력요소별 하위요소는 문제의 명료화-문제인식(5문항), 원인분석-정보수집(5문항), 분석능력(5문항), 대안개발-확산적 사고(5문항), 의사결정(5문항), 계획/실행-기획력(5문항), 실행과 모험감수(5문항), 수행평가-평가(5문항), 피드백(5문항) 등을 측정하고 있고 총 45문항이다. 문항은 '매우 자주' 5점, '자주' 4점, '보통' 3점, '드물게' 2점, '매우 드물게' 1점까지의 5점 Likert scale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α값은 .94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92였다. 도구의 사용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실에 공개된 자료로 각 논문에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도록 공개되어 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상태, 대인관계 유능성, 문제해결 능력은 빈도, 백분률,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상태, 대인관계 유능성,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자아상태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4) 대상자의 자아상태와 대인관계 유능성, 문제해결 능력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하였다.

2.5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연구자 소속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KW2017-14)을 받았다. 본 연구 진행을 위해 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설문내용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되고 강제성이 없으며 언제든지 응답을 철회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 시 별도로 마련한 설문지 수거함을 마련하여 개별적으로 넣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코드로 대상자의 정보를 식별하였다. 설문지가 완성된 후에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자아상태, 대인관계 유능성, 문제해결 능력 수준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자아상태, 대인관계 유능성, 문제해결 능력의 수준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영남 지역 4개 간호대학의 재학생으로 남학생이 47명(15.1%), 여학생이 264명(84.9%)으로 총 311명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9세이며, 동거가족은 4인 이하인 경우가 266명(85.5%)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있음 114명(36.7%), 없음 197명(63.3%)이었다. 재학 중인 대학은 4년제 대학 재학생이 150명(48.2%), 전문대학 간호학과 4년제 재학생이 161명(51.8%)이었다.

대상자의 자아상태 평균은 비판적 부모 자아(CP)는 31.81(4.44)점, 양육적 부모 자아(NP)는 36.77(5.38)점, 성인자아(A)는 32.83(4.87)점,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는 32.34(5.33)점, 순응적 어린이 자아(AC)는 33.06(6.41)점이었다. 대상자의 자아상태 Egogram 그래프에서는 NP를 정점으로 하고 AC로 내려가는 언덕형의 패턴을 보였다.

대상자의 대인관계 유능성의 총합 점수는 103.42(14.42)으로 나타났으며, 5가지 하위요인 별로 관계형성 및 개시는 26.26(6.19)점,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은 22.59(4.59)점, 타인에 대한 배려는 25.03(3.81)점, 갈등관리는 20.79(3.59)점, 적절한 자기개방8.75(2.34)점이었다.

문제해결 능력은 5개의 능력요소 별로 문제의 명료화 3.58(0.57)점, 원인분석 3.44(0.46)점, 대안개발 3.40(0.49)점, 계획 및 실행 3.34(0.52)점, 수행평가 3.51(0.51)점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상태, 대인관계 유능성,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상태, 대인관계 유능성,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제 변수들의 차이는 자아상태에서 성인자아(A)(t=3.20, p=.001)에 대해서 남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고 대인관계 유능성과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학 중인 대학 별로 제 변수의 차이는 자아상태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대인관계 유능성(t=2.44, p=.015)과 문제해결 능력의 도구 중 문제의 명료화(t=3.94, p<.001), 원인분석(t=3.63, p<.001), 대안개발(t=2.16, p=.031), 수행평가(t=3.25, p<.001)에서 4년제 대학 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the Levels of Ego stat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N=311)

Characteristics	Cathegories	N(%)	M(SD)
Range Age	≦24	290(93.2)	
	25≦	21(6.8)	
Sex	Male	47(15.1)	
	Female	264(84.9)	
Family living together	1	2(0.6)	
	2	14(4.5)	
	3	85(27.3)	
	4	165(53.1)	
	5	38(12.2)	
	6	4(1.3)	
	7	3(1.0)	
Religion	Have	114(36.7)	
	Haven't	197(63.3)	
Affiliation university	Baccalaureate degree	150(48.2)	
	College diploma(4year)	161(51.8)	
Ego state	CP(Critical parent)		31.81 (4.44)
	NP(Nurturing parent)		36.77 (5.38)
	A(Adult)		32.83 (4.87)
	FC(Free child)		32.34 (5.33)
	AC(Adapted child)		33.06 (6.41)
Interpersonal competence	Interpersonal competence(total)		103.42 (14.42)
	Begin forming relationships		26.26 (6.19)
	Claim of rights and discomfort		22.59 (4.59)
	Respect for others		25.03 (3.81)
	Conflict management		20.79 (3.59)
	Self-opening		8.75 (2.34)
Problem solving ability	Clarification of the problem		3.58 (0.57)
	Cause Analysis		3.44 (0.46)
	Alternative development		3.40 (0.49)
	Planning and execution		3.34 (0.52)
	Performance assessment		3.51 (0.51)

3.3 대상자의 자아상태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자아상태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의 차이는 비판적 부모 자아(CP)(t=-4.92, p<.001), 양육적 부모 자아(NP)(t=-7.67, p<.001), 성인자아(A)(t=-5.49, p<.001),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t=-8.05, p<.001) 상태에서 자아상태가 높은 집단이 자아상태가 낮은 집단보다 대인관계 유능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순응적 어린이 자아(AC)(t=2.41, p=.016)상태의 경우 자아상태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대인관계 유능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상태 수준에 따른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는 측정도구인 문제의 명료화, 원인분석, 대안개발, 계획 및 실행, 수행평가 요소별로 차이를 분석하였다. 문제의 명료화, 원인분석, 대안개발, 수행평가에서는 비판적 부모 자아(CP), 양육적 부모 자아(NP), 성인자아(A),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에서 자아상태가 높은 집단이 자아상태가 낮은 집단보다 각 하위 요소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계획 및 실행의 경우 비판적 부모 자아(CP)(t=-4.88, p<.001), 양육적 부모 자아(NP)(t=-4.28, p<.001), 성인자아(A)(t=-4.78, p<.001),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t=-4.57, p<.001)에서 자아상태가 높은 집단이 자아상태가 낮은 집단보다 계획 및 실행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응적 어린이 자아(AC)(t=2.84, p=.005)에서는 자아상태가 낮은 집단이 자아상태가 높은 집단보다 계획 및 실행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자아상태와 대인관계 유능성, 문제해결 능력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와 대인관계 유능성, 문제해결 능력의 하위요소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아상태 중 비판적 부모 자아(CP)(r=.31, p<.001), 양육적 부모 자아(NP)(r=.45, p<.001), 성인자아(A)(r=.35, p<.001),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r=.50, p<.001)는 대인관계 유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순응적 어린이 자아(AC)(r=-.22, p<.001)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상태 5가지 중 비판적 부모자아, 양육적 부모 자아(NP), 성인자아(A),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는 문제해결 능력의 하위 요소 중 문제의 명료화, 원인분석, 대안개발, 수행평가의 하위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하위 요소 중 계획 및 실행의 경우 자아상태 중 비판적 부모자아(CP)(r=.30, p<.001), 양육적

Table 2. Differences in ego stat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11)

Charac-teristics	Cathegories	Ego state									
		CP		NP		A		FC		AC	
		M (SD)	F/ t(p)	M (SD)	F/ t(p)	M (SD)	F/ t(p)	M (SD)	F/ t(p)	M (SD)	F/ t(p)
Sex	Male	32.76 (4.18)	1.60 (.110)	36.42 (4.89)	-0.47 (.636)	34.89 (4.52)	3.20 (.001)	33.29 (4.75)	1.34 (.181)	32.59 (6.76)	-0.53 (.590)
	Female	31.64 (4.47)		36.83 (5.47)		32.45 (4.84)		32.16 (5.41)		33.14 (6.35)	
Religion	Christianity	30.79 (4.16)	1.35 (.256)	37.27 (5.26)	0.36 (.780)	33.77 (4.54)	1.37 (.251)	32.77 (5.31)	0.61 (.604)	32.41 (6.65)	0.30 (.823)
	Catholic	32.87 (4.70)		36.65 (5.78)		33.82 (4.36)		31.30 (6.05)		32.43 (7.01)	
	Buddhism	31.72 (4.80)		37.25 (4.16)		33.02 (5.07)		31.74 (5.44)		33.20 (5.65)	
	Haven't	31.95 (4.38)		36.55 (5.61)		32.43 (4.93)		32.48 (5.23)		33.25 (6.46)	
Affiliation university	Baccalaureate degree	31.91 (4.68)	0.39 (.694)	37.20 (4.65)	1.40 (.163)	33.06 (4.61)	0.84 (.402)	32.40 (5.33)	0.22 (.826)	32.44 (6.60)	-1.65 (.099)
	College diploma(4year)	31.71 (4.21)		36.36 (5.96)		32.60 (5.09)		32.27 (5.34)		33.64 (6.18)	

CP=Critical parent, NP=Nurturing parent, A=Adult, FC=Free child, AC=Adapted child

Table 2. Continuced (N=311)

Charact-eristics	Cathe-gories	Interpersonal competence		Problem solving ability									
				Clarification of the problem		Cause analysis		Alternative development		Planning and execution		Performance assessment	
				M (SD)	F/ t(p)	M (SD)	F/ t(p)	M (SD)	F/ t(p)	M (SD)	F/ t(p)	M (SD)	F/ t(p)
Sex	Male	105.00 (11.94)	0.81 (.416)	18.42 (2.73)	1.29 (.198)	35.57 (3.89)	1.77 (.077)	34.85 (4.03)	1.25 (.212)	34.19 (4.52)	1.09 (.274)	35.34 (5.15)	0.23 (.815)
	Female	103.14 (14.82)		17.83 (2.90)		34.28 (4.41)		33.87 (5.04)		33.27 (5.41)		35.14 (5.19)	
Religion	Christianity	105.37 (11.37)	0.49 (.686)	3.55 (0.51)	0.21 (.885)	3.44 (0.43)	0.23 (.874)	3.47 (0.38)	0.43 (.730)	3.37 (0.49)	0.47 (.701)	3.63 (0.49)	0.98 (.399)
	Catholic	101.21 (17.11)		3.53 (0.56)		3.41 (0.45)		3.39 (0.46)		3.43 (0.48)		3.50 (0.41)	
	Buddhism	102.86 (15.29)		3.54 (0.51)		3.40 (0.43)		3.39 (0.51)		3.36 (0.54)		3.48 (0.51)	
	Haven't	103.32 (14.61)		3.60 (0.60)		3.46 (0.47)		3.38 (0.51)		3.31 (0.54)		3.49 (0.53)	
Affiliation university	Baccal-aureate degree	105.48 (14.92)	2.44 (.015)	18.58 (2.62)	3.94*	35.44 (4.16)	3.63*	34.64 (4.98)	2.16 (.031)	33.88 (5.34)	1.50 (.132)	36.15 (5.15)	3.25*
	College diploma (4year)	101.50 (13.70)		17.31 (2.98)		33.57 (4.84)		33.44 (4.79)		32.97 (5.22)		34.26 (5.05)	

CP=Critical parent, NP=Nurturing parent, A=Adult, FC=Free child, AC=Adapted child
* (<.001)

Table 3. Differences i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according to Ego state.

(N=311)

Group	N (%)	Interpersonal competence		Problem solving ability									
				Clarification of the problem		Cause analysis		Alternative development		Planning and execution		Performance assessment	
		M(SD)	t(*p*)	M(SD)	t(*p*)	M(SD)	t(*p*)	M(SD)	t(*p*)	M(SD)	t(*p*)	M(SD)	t(*p*)
low CP	156 (50.2)	99.55 (13.28)	-4.92 (<.001)	17.22 (2.72)	-4.43 (<.001)	33.64 (4.27)	-3.26 (.001)	33.05 (4.27)	-3.57 (<.001)	32.00 (4.69)	-4.88 (<.001)	34.23 (4.87)	-3.25 (.001)
high CP	155 (49.8)	107.31 (14.51)		18.63 (2.87)		35.32 (4.80)		35.00 (5.31)		34.83 (5.49)		36.12 (5.32)	
low NP	148 (47.6)	97.38 (12.36)	-7.67 (<.001)	16.89 (2.74)	-6.35 (<.001)	33.21 (4.20)	-4.75 (<.001)	32.11 (3.82)	-7.12 (<.001)	32.10 (4.68)	-4.28 (<.001)	33.10 (4.87)	-7.27 (<.001)
high NP	163 (52.4)	108.91 (13.99)		18.85 (2.69)		35.62 (4.68)		35.76 (5.15)		34.59 (5.54)		37.06 (4.72)	
low A	153 (49.2)	99.07 (12.26)	-5.49 (<.001)	16.94 (2.56_	-6.23 (<.001)	33.39 (4.26)	-4.19 (<.001)	32.76 (4.35)	-4.59 (<.001)	32.00 (4.82)	-4.78 (<.001)	34.24 (4.62)	-3.15 (.002)
high A	158 (50.8)	107.63 (15.13)		18.87 2.87)		35.53 (4.71)		35.24 (5.12)		34.77 (5.38)		36.07 (5.54)	
low FC	160 (51.4)	97.59 (12.64)	-8.05 (<.001)	17.35 (2.82)	-3.69 (<.001)	33.35 (4.10)	-4.58 (<.001)	32.67 (4.13)	-5.15 (<.001)	32.11 (4.84)	-4.57 (<.001)	34.06 (4.73)	-3.99 (<.001)
high FC	151 (48.6)	109.59 (13.63)		18.53 (2.82)		35.67 (4.83)		35.45 (5.27)		34.78 (5.41)		36.35 (5.38)	
low AC	157 (50.5)	105.36 (15.07)	2.41 (.016)	17.87 (2.80)	-0.29 (.772)	34.01 (4.64)	-1.78 (.076)	33.98 (4.70)	-0.16 (.871)	34.24 (5.57)	2.84 (.005)	35.36 (5.31)	0.66 (.509)
high AC	154 (49.5)	101.44 (13.49)		17.97 (2.96)		34.94 (4.55)		34.07 (5.13)		32.55 (4.86)		34.98 (5.04)	

CP=Critical parent, NP=Nurturing parent, A=Adult, FC=Free child, AC=Adapted child

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Ego stat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N=311)

Variables		Interpersonal competence	Problem solving ability				
			Clarification of the problem	Cause analysis	Alternative development	Planning and execution	Performance assessment
Ego state	CP	.31*	.29*	.27*	.25*	.30*	.21*
	NP	.45*	.40*	.26*	.40*	.28*	.40*
	A	.35*	.37*	.23*	.33*	.35*	.24*
	FC	.50*	.25*	.28*	.34*	.33*	.31*
	AC	-.22*	-.01(.947)	.05(.420)	-.02(.716)	-.22*	-.05(.354)

CP=Critical parent, NP=Nurturing parent, A=Adult, FC=Free child, AC=Adapted child

* p<.001

부모 자아(NP)(r=.28, p<.001), 성인자아(A)(r=.35, p<.001),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r=.33,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순응적 어린이자아(AC)(r=-.22, p<.001)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와 대인관계, 문제해결 능력을 파악하고 자아상태와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 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대인관계 유능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는 비판적 부모 자아(CP)가 가장 낮고, 양육적 부모 자아(NP)를 정점으로 성인자아(A)와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를 거쳐 순응적 어린이 자아(AC)까지 내려가는 언덕형의 패턴으로 나타났다. 이고그램 전형 패턴에 의한 성격진단에 따르면 원만형으로 볼 수 있으며, 남을 위한 생각으로 행동하고(양육적 부모 자아(NP), 성인자아(A)), 명랑함과 자신을 적절히 표현

할 수 있고(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 타인과의 사이에 따뜻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쉽고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타입으로 설명된다[22]. 이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가 양육적 부모 자아(NP)를 정점으로 성인자아(A), 순응적 어린이 자아(AC)로 내려가는 형태로 보고한 선행연구[11]와 일치하였다. 일부 선행연구 중에는 양육적 부모 자아(NP)를 정점으로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가 높은 점수를 보이는 양육적 부모 자아(NP)우위의 M형의 패턴으로 본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16].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를 조사한 선행연구와 같이 각 자아상태의 점수에 따라 이고그램 패턴은 차이가 있었으나, 양육적 부모 자아(NP)가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양육적 부모 자아(NP) 우위형이라는 특성은 일치하였다. 즉, 돌봄, 공감, 양육적 측면이 강조되는 간호학의 특성이 양육적 부모 자아(NP) 우위형의 패턴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은 155점 만점에 103.42점으로 동일한 측정도구, 동일한 전공자 대상으로 측정한 남여정[23]의 연구결과 보다본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 유능성 점수가 높았으며, 국내 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 유능성 점수 101.35점[24] 보다도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간호사의 원만한 대인관계는 자존감과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그 결과 대상자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통하여 대상자의 높은 간호만족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이러한 연구 결과로 미뤄 볼 때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각 간호대학에서 교과과정 중 대인관계 유능성 강화를 위한 이론 교육을 받고, 임상실습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대상자와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도록 요구받고 있으므로 스스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이 3.45점으로 나타났다. 정승교[26]의 연구에서의 3.28점, 양선희와 심인옥[27]의 연구에서 3.49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문제해결능력의 5개 구성 요소별로는 문제의 명료화가 3.5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계획 및 실행이 3.3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양남영과 문선영[28]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문제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원인을 확인과 효율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은 다소 부족하다는 결과와 맥락이 비슷하다. 선행연구 중 암기위주의 학습으로 인해 조직적으로 탐구하고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결론을 탐색해가는 습관이 부족하다는 정승교[26]의 연구에서와 같이 문제해결 기술 및 다양한 실행방안을 찾는 기술들을 학습하고 훈련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수집을 해나가는 하는 학습방법을 교육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상태와 대인관계 유능성,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자아상태에서 성별 중 남자의 성인자아(A) 점수가 여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남자의 자아상태를 이성적, 논리적, 객관적으로 여자는 감정적, 직관적, 주관적이라고 분석한 내용과 일치한다[29].

대인관계 유능성은 재학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그룹이 전문대학(4년제) 그룹보다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학령인구가 줄고 성인학습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전문대학교 재학생 연령층의 다변화 영향[30]으로 전문대학(4년제) 재학생의 연령 분포가 4년제 대학 재학생의 분포보다 다양한 것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 중 연령의 증가에 따라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타인에 대한 이해력 감소와 함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31]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재학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년제 대학 재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학 대학의 형태에 따라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를 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는 어렵지만 다양한 연령분포가 대인관계 유능성, 문제해결 능력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 연구 중에서 주관적 대인관계를 잘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문제해결 능력이 높게 나타난 우정희 등[32]의 선행연구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향후 대인관계 유능성과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연령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상태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

과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비판적 부모 자아(CP), 양육적 부모 자아(NP), 성인자아(A),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는 자아상태가 높은 집단에서 대인관계 유능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순응적 어린이 자아(AC)는 자아상태가 낮은 집단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문제해결 능력은 5개 구성요소 중 계획 및 실행에서 순응적 어린이 자아(AC)상태가 낮은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각 자아상태의 특성과 관련하여 내용적으로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비판적 부모자아는 이상, 양심, 책임, 비판 등의 가치판단이나 윤리관 등 규범적인 부분을 주로 담당하며 보수적이나 결정된 것은 확실하게 지키며 일을 진실하게 일을 해내는 특성이다[22]. 협동 및 협업이 많은 간호학과, 간호사 일의 특성으로 비판적 부모자아(CP)가 높은 집단의 대인관계 유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선행연구 결과[11],[33]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비판적 부모 자아(CP)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대인관계 유능성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양육적 부모 자아(NP)는 공감, 동정, 보호, 수용 등 타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돌봄의 부분으로 타인에 대해 수용적, 동정적이고 애정이 깊으며 긍정적 스트로크를 많이 사용하고, 성인자아(A)는 사실에 입각해서 사물을 판단하는 부분으로 현실을 객관화하고, 여러 각도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행한다.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는 본능적, 충동적 반응으로 항상성 원리에 입각한 자연 그대로의 쾌감을 찾고 천진난만하여 상대방에게 따뜻함이나 명랑함을 느끼게 한다[22].

이러한 자아상태의 특성으로 양육적 부모 자아(NP), 성인자아(A),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가 높은 집단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양육적 부모 자아(NP), 성인자아(A),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가 높은 집단에서 대인관계 기술이 높았고[11],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3]의 경우 양육적 부모 자아(NP), 성인자아(A)가 높은 집단에서 대인관계 기술이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순응적 어린이 자아(AC)의 경우 상대방의 기대에 맞도록 항상 주위에 마음을 쓰며 자유로운 감정을 억제한다. 자율성이 결여된 채로 주위에 화합을 도모하고, 행동은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우며 주위에 순종하는 행동을 보이지만 감정면에서는 공격적, 반항적인 부분도 있다[22]. 순응적 어린이 자아(AC)의 이러한 특성으로 본 연구와 선행 연구들에서 순응적 어린이자아(AC)가 낮은 집단이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비판적 부모 자아(CP), 양육적 부모 자아(NP), 성인자아(A),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가 대인관계 유능성, 문제해결 능력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순응적 어린이자아(AC)는 대인관계 유능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문제해결 능력의 5개 구성요소 중 계획 및 실행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선행 연구 중 자아상태의 특성과 대인관계의 관련성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상태와 대인관계의 상관관계 결과와 유사하였다[18].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순응적 어린이 자아(AC)가 강한 학생들이 대인관계의 한 부분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와 같이 순응적 어린이자아(AC)는 의사소통을 포함한 대인관계 기술에 도움이 되기 어려운 자아상태라는 연구결과[34]와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또한 우정희 등[32]의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이 대상의 연구에서 주관적 대인관계를 잘 하는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문제해결 능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조현희[35]의 연구에서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은 긍정적으로 문제를 인식하여 해결하려하고, 보통인 학생은 부정적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비판적 부모 자아(CP), 양육적 부모 자아(NP), 성인자아(A),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가 높거나, 순응적 어린이 자아(AC)가 낮은 경우 대인관계 유능성,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가치판단이나 윤리관 등 규범적인 부분의 비판적 부모자아(CP), 공감, 동정, 보호, 수용 등 타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돌봄의 양육적 부모 자아(NP), 현실을 객관화하는 성인자아(A), 상대방에게 따뜻함이나 명랑함을 느끼게 하는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의 특성과 간호학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대인관계에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대인관계의 향상은 결론적으로 문제해결 능력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상태와 대인관계 유능성, 문제해결 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는 비판적 부모 자아(CP)가 가장 낮고, 양육적 부모자아(NP)를 정점으로 성인자아(A)와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를 거쳐 순응적 어린이 자아(AC)까지 내려가는 언덕형 이고그램 패턴으로 원만형의 자아상태로 나타났다. 비판적 부모 자아(CP), 양육적 부모 자아(NP), 성인자아(A),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가 높은 그룹, 순응적 어린이 자아(AC)가 낮은 그룹이 대인관계 유능성과 문제해결 능력의 정도가 높았으며, 각 자아상태와 대인관계 유능성과 문제해결 능력 간의 관계는 비판적 부모 자아(CP), 양육적 부모 자아(NP), 성인자아(A),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가 대인관계 유능성과 문제해결 능력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책임지는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에게 대상자와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임상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지닌 다양한 대상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들의 지속적인 건강변화 요구에 맞추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함양을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부모자아, 양육적 부모 자아(NP), 성인자아(A),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를 증진시키고, 순응적 어린이 자아(AC)의 부정적 특성을 극복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호교류분석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융복합적 함의를 제공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부모 자아(CP), 양육적 부모자아(NP), 성인자아(A),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의 증진과 순응적 어린이 자아(AC)의 부정적 특성을 극복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 반영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가 일부지역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자로 편의표집 한 것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추후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타전공 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 대인관계 유능성, 문제해결 능력을 비교분석해보는 연구와 좀 더 확대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호교류분석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수행되어지기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J. H. Park.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nursing education performance items. *J.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1),* 185-198.

[2] S. J. Lee, Y. K Chang, H. N. Lee & K. Y. Park. (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Chungcheongbuk-do.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3] J. H. Choi. (2011).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local cities : Focus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J.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5),* 2473-2485.

[4] E. Y. Choi & J. Y. Kim. (2007). The relationship of core competencies problem solving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o critical thinking. *J Korean Acad Fundam Nurs, 14(4)*, 412-419.

[5] N. Y. Yang & S. Y. Moon. (2013). The impact of health status,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ocial problem ability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19(1)*, 33-42.

[6] T. W. Eom & K. Y. Lee. (2004).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problem solving capability,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Mental Health & Social Work, 18*, 5-32.

[7] H. M. Kim. (2009). The effect of the solution-focused communication training on th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8(4)*, 399-408.

[8] E. H. Choi & Y. K. Kwag. (2017). Factors affecting on nursing performances in emergency simulation. *Asia-pacific J.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2)*, 505-513.

[9] D. H. Kim, Y. J. Lee, M. S. Hwang, J. H. Park, H. S. Kim & H. G. Cha. (2012). Effects of a simulation-based integrated clinical practice program(SICPP) on the problem solving process, clinical competence and critical thinking in a nursing student. *J Korean Acad Soc Nurs Edu, 18(3)*, 499-509.

[10] M. H. Lee, H. K. Kim, S. H. Jeong & I. O. Moon. (2011). Effect of task performance style in nursing management practicum on problem-solving and nursing competency according to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Nurs Admin, 17(1)*, 106-114.

[11] H. S. Sim & S. Y. Ahn. (2015). The influence of state and interpersonal skill among nursing students. *J*

Digital Convergence, 13(12), 269-275.

[12] J. Kaids. (2002). Why nursing students are good for you. *Nursing, 32(10)*, 1-32.

[13] E. Y. Yeom & H. O. Jeon. (2013). Relations of burnout, interpersonal relations,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depression in clinical nurses.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2869-2879.

[14] S. J. Lee. (2013).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nursing performance among clinic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15] K. J. Ji & J. Y. Yoo. (2013). A study of emotion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happiness university student division of health. *J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10),* 653-660.

[16] J. Y. Lee. (2012). The effect of ego states and life positions on empathy in nursing students. *J of Stress Research, 20(2)*, 113-122.

[17] M. R. Lee & Y. K. Kwag. (2017). Personality type, ego state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5)*, 523-533.

[18] M. Jung. (2015). Influence of ego states, self esteem, and empath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7), 4614-4620.

[19] M. Sugida. (2007). *Transactional analysis.* Seoul : Minjisa.

[20]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 H.T. Reis.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21] N. R. Han & D. G. Lee. (2010). Validation of 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n Korean college students. J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1), 137-156.

[22] G. S. Kim, N. O. Kim, S. K. Chu, S. Y. Lee & D. Y. Lee. (2005). *Transactional analysis.* Seoul : Central aptitude publisher.

[23] Y. J. Nam. (2017). *The influence of self-awareness, self-acceptance and empathy on interperson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4] M. J. Bae & H. I. Jo.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self-esteem, cognitive/affective empath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Korea J Counseling, 15(6)*, 2417-2435.

[25] K. Utriainen & H. Kyngäs. (2009). Hospital nurses' job satisfaction: a literature review. *J Nurs Manag, 17(8)*, 1002-1010. doi: 10.1111/j.1365-2834.2009.01028.x.

[26] S. K. Jung.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18(1)*, 71-78.

[27] S. H. Yang & I. O. Sim. (2016).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reativity, self efficacy and nursing process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6(5)*, 612-622.

[28] N. Y. Yang & S. Y. Moon. (2013). The impact of health status,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ocial problem ability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19(1)*, 33-42.

[29] W. M. Park, J. S. Kim, S. H. Yun & S. M. Cheon. (2010). The correlation between ego state scale and LCSI personality test. *J School Psychology, 7(2)*, 217-233.

[30]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2011). *Higher Education Statistics at a Glance.* Chungcheongbuk-do.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31] J. H. Kim & J. S. Lee. (2013). The experience of clinical nurses' interpersonal conflict. *J Qual Res, 14(1)*, 70-80.

[32] C. H. Woo, J. Y. Yoo & J. Y. Park. (2015). The relationship among hesitation factor of question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 The university student"s perspective. *J Korean Acad Soc Nurs Edu, 21(3)*, 320-329.

[33] S. I. Bae. (2012). *The effects of ego state and life position by transactional analysis theory on college adjustment and personal relationship of freshmen.*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34] Y. R. Hur & A. R. Cho. (2014). Short communication : The relationship between ego-state and communication skills in medical students. *Korean J Med Educ, 26(1)*, 59-62.

[35] H. H. Jo.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goal commitment and critical thinking of nursing students having experience in a simulation practicum and their problem solving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김 상 남(Sang-Nami Kim) [정회원]

- 1997년 2월 :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모자보건학전공(보건학 석사)
- 2002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 박사)
- 2018년 12월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간호학, 성폭력 예방 교육
- E-Mail : sang8623@ikw.ac.k

김 영 미(Young-Mi Kim) [정회원]

- 2012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 석사)
- 2017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박사과정수료)
- 2015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간호학, 자살예방
- E-Mail : 01771king@hanmail.net

이 소 영(So-Young Lee) [정회원]

- 2015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 석사)
- 2017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박사과정수료)
- 2016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간호학, 긍정심리
- E-Mail : ysy03967@hanmail.net